“대통합 하라” DJ 당부 벌써 잊었나

민주-친노 주도권 싸움… 야권 대통합 진통 예고

“신당창당은 국민분열” “민주당 중심 사고 안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민주개혁진영의 통합 및 연합’ 유지를 받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일부 친노신당파가 창당 작업을 가속화하는가 하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일부 재야인사들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며 민주당 중심의 통합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J의 유지인 야권의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과거 재야운동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시민행동’이 27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 모임에는 이치범 전 환경부장관, 연합뉴스 사장을 지낸 김종철 전 민통련 사무처장, 이창복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이 전 총리의 정치세력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특히 지난 25일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혁신을 하길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며 “민주당 없이는 안 되겠지만 민주당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병완 전 청와대 수석, 천호선 전 대변인 등은 연내 창당을 목표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도 민주당의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하며 민주당 중심의 통합에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친노세력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은 야권통합의 주도권 싸움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이 화두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친노 측은 미리 정치세력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이를 위해 민주당 중심의 통합 작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이쯤 되자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강하게 공격하고 나섰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민주개혁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국민분열 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갈등으로 치닫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부채는 모두 민주당이 승계했다”며 “신당은 있어도, 친노신당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친노그룹의 신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응전략 변화로 볼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유훈을 통해 민주당을 민주개혁세력의 적통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야권통합작업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유훈을 공개한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친노신당 움직임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친노신당파인 천호선 전 대변인이 “김 전 대통령의 ‘민주 대연합’ 유언을 민주당에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일축한 데 대해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격이 못된다. 친노그룹의 대표적인 인사들은 우리 민주당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일부 소수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묵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상도동 자택을 예방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을 배웅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기간 조의 표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나라 김형오-안상수 개헌론 ‘쌍끌이’ 하나

“18대 국회 개헌 최적기” 헌법자문위 설치

친박 반대·야권 “국면전환용”… 진통 불가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끝나자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헌론을 집중 제기하며 개헌 정국을 유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대와 야권의 경계심이 만만치 않아 개헌논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치권 내 논의의 틀을 만드는 데 총대를 메면서 개헌논의를 주도할 태세다.

김 의장은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난 7월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또 26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의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연구자문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복수안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김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때를 맞춰 안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야당과 협의,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원내대표가 개헌론의 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이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한나라당발(發) 개헌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친박(친 박근혜) 성향의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면 서문에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좌우대립이 생기고 국론이 분열돼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날 여권 등에서 개헌론을 제기하자 ‘국면전환용’이라며 경계를 풀지 않았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며 미디어법 등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현재의 개헌논의는 국면전환용으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제도보다 정치권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장 기간 조의 표시 감사합니다”

DJ 차남 김홍업 전 의원, YS·전두환 방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이 26일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YS) 을 차례로 예방, DJ의 병문안과 문상에 나선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동교동계의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동석, DJ 서거 이후 점차 고조되고 있는 정치권의 화해와 통합 기류와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YS는 이날 상도동 자택을 찾은 김홍업 전 의원이 문상과 병문안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으며 박지원 의원에게도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 일행은 이날 저녁 예정됐던 YS의 동교동계 위로 만찬을 시기를 들어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YS는 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앞서 DJ 측은 연희동 자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 국장 기간 조의 표시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건강을 염려하며 건강하게 모시도록 당부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한편, 김홍업 전 의원의 큰 아들과 전 전 대통령의 손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며, 권 전 의원의 딸과 전 전 대통령의 딸이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DJ 유언은 박지원이 지어낸 말”

정동영 지지모임대표

무소속 정동영 의원 지지자모임 대표가 26일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정 의원 지지모임인 ‘정통들’의 홍성룡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 4당과 단합하라’는 김 전 대통령 유언에 대해 “박지원 의원께서 지어낸 말일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진영 단합을 유언으로 하시면서 ‘특정인을 중심으로’라는 문구를 쓰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과대 아전인수격 해석이거나 민주당 정책위장 임명에 대한 ‘보은의 선물’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 측은해 보인다”며 “박 의원의 그 발언 한마디로 단합보다는 소모적 분열이 시작됐다”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